



옛모습대로 팔각정을 세워 복원한 어수정

## 李太祖 물마신 「御水井」

住民 桂藝煥씨가 私財 300萬원 들여

太祖 李成桂가 咸興 행차때 물을 마셔 갈증을 덜었다는 유서깊은 京畿道 楊洲郡 東豆川邑 生淵里 어수정(御水井)이 한 독지가에 의해 옛모습대로 복원됐다. 이 어수정은 주민 桂藝煥씨(58)가 지난 4월 10일 사재 3백만원을 투입, 샘터 위에 높이 6m나 되는 네기둥의 조선조 양식의 팔각정을 세워 착공 3개월만에 준공했다. 어수정은 지금으로부터 5백76년 전인 서기 1400년(定宗 2년)때 李成桂가 왕자들의 권력다툼에서 빚어진 괴로움을 씻기 위해 咸興 나들이에 오르내리다 더위를 피해 이곳 샘물을 마셨다는 유래로 어수정으로 불리워 보존 마을도 御水井으로 불려져 내려왔으나 6·25동란때 샘터가 폐쇄 됐다. 둘레 3m, 깊이 약 1m의 샘은 심한 가뭄에도 좀처럼 물이 마르지 않고 세차게 솟아 예부터 주민들이 약수로 마셔왔다. 문화재보호협회 양주군지부는 이 일대의 대지 1백평을 주민 李鍾吉(28)씨로부터 기증받아 주변에 철책을 두르고 관상수를 심어 소공원으로 꾸미기로 했다.